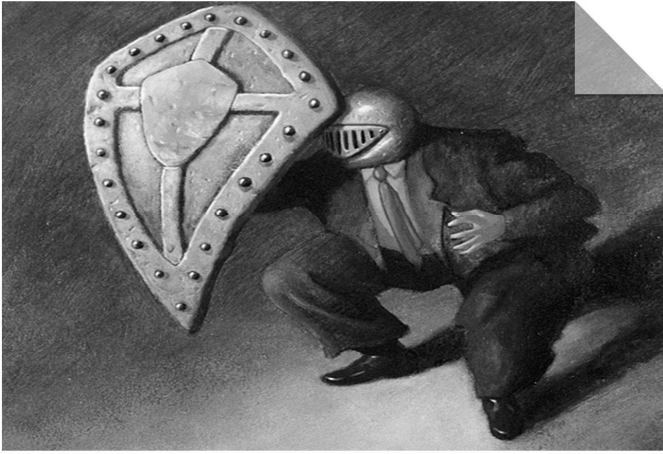


## 5장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 제 5 장

#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 하느니라
-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 4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 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 7 증거 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8 증거 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 하신 것 이니라

-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이니라
-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 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 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 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 18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 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 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 서론

그리스도인이란 증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며, 증생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며 첫째의 자격이다. 본 장에서는 증생한 자의 경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1. 어떻게 하여 거듭나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 으로서 거듭난다(5:1; 요 1:12).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자’ 가 된다(5:18; 3:9).
3. 오히려 ‘의를 행하는 자’ 가 된다(3:7).
4. 서로 ‘사랑하는 자’ 가 된다(4:7).
5. ‘세상을 이기는 자’ 가 된다(5:4).
6. ‘자신을 지키는 자’ 가 되어 범죄치 아니한다(5:21,18).

거듭남에 관하여 성경이 명시하는 표준은 다음과 같다.

‘그 안에 거함’ 으로서 거듭난 은혜를 유지하는 자는, 다만 범죄치 않는 것만이 아니고(요일 3:6), 이 세상과 정욕(요일 2:16)을 이길 뿐 아니라(요일 5:4), 그 안에 거하는 일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또 그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는 것’ 이다(요일 5:18). 이는 그가 ‘불성곽’ 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속 2: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서 거듭난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증거로써 ‘영원한 생명’ 을 가지고 있고(요일 5:10~12),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을 기도하며, 그러한 기도는 또한 응답을 받게 된다(요일 5:14,15). 거듭난 경험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 하게 되는데, 이로써 ‘서로 사랑’ 하게 된다(요일 5:2). “서로 사랑하라” 는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므로 결코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주문이 아닌 것이다(요일 5:3).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된다거나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그 계명을 순종하는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이 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귄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적인 욕망들을 이길 수가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요일 5:4). 이와 같이 진리와(요일 4:1~6) 사랑과(요일 4:7~21) 믿음은(요일 5:1~12), 하나님과의 교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믿음은 마침내 승리와(요일 5:4) 생명을 가져온다(요일 5:11~13).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안에서 성취되며 체험되어진다(요일 5:5). 이것을 증거 하시는 이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즉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 증거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 하는 동시에, 대제사장이심을 표명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의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요 20:31), 요한 서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5:13)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 17:3)이야말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믿음으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경험한 자는 확신으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소원이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소원이시며, 이것을 위해 ‘탄원하는 영’ 으로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신다.

### V-3. 믿음은 승리와 생명을 가져옴, 5:1~12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 기름부음을 받은 자 또는 메시아(마 1:1). 인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것은 구속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3:23; 4:2,15).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의 표징 중 하나이다(2:22).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들과 같이 동일한 하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동일한 가족의 구성원인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것이라고 진술한다.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들었기 때문에 (4:20,21) 또한 우리의 형제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제시해 준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의 관계를 재차 강하게 연결시키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을 차용하여 그의 복음서에도 역시 분명하게 강조한다.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 14:23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눅 10:27), 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요일 3:23), 또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결국 십계명은 두 계율,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확장일 뿐이다(마 19:17~19; 22:36~40; 롬 13:8~10).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이 고된 것이 아닌 이유는 순종이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요구를 지키고 순종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신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 ♣ 작은 기도

1558년 영국 샐리스버리의 한 교회에서 기도집을 펴냈다.

여기에 있는 <사룸의 작은 기도문>이 후에 많은 사람을 감화시켰다.

<짧은 기도의 큰 감화> 전문은 이렇다.

“하나님, 제 머리에 계셔서 제 지식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눈에 계셔서 제가 보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입에 계셔서 제가 말하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계셔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목표에 계셔서 제 출발을 주관하소서. ”

#### 4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지만 (롬 8:7),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3:3) 모든 것이 가능하다(막 11:22~24).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벧후 1:4), 그분의 지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지탱했던 그 동일한 원천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지며, 사단에게서 오는 세속적인 유혹들과 방법들을 이길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능력으로 유혹에 대항할 때마다 원수는 패배한다(약 4:7).

- ... 이긴 ... 이김(헬, 동사형: 니카오, nikao) : ‘정복하다’  
(헬, 명사형: 니케, nike) : ‘승리를 얻는 수단들’, ‘승리’

니케는 고대 헬라어에서 흔히 쓰였으며 헬라의 승리의 여신에게 주어진 이름이었다. 4절에서는 “우리의 믿음” 이 ‘어떻게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 5절에서는 “그 믿음”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고 답변한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 대한 구주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게 한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끌어준다. [세상을 이긴 이김 → 곧 믿음]

\* 일어나라는 명령을 받은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시도한다(요 5:5~9).

1. 우리의 의지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선택할 때! - 현재 Get up! 일어나라! - 의지의 선택력 활용(롬 6:12~18)



2. 38년 된 죄의 자리를 들고, 즉 죄로 다시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 - 짓된 과거  
Pick up your mat!! 네 죄의 자리를 들고!! - 의지의 결정력 활용
3.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협력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 미래  
Walk(Walk in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 의지의 지배력

우리의 의지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선택할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도덕적 신경섬유 속으로 들어와 믿음으로 우리가 소원했던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가 등을 대고 누운 채로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들어 올려 줄 것을 기다리고만 있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약속들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 전에 그것들을 좇아 행하기를 소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구해야만 한다.

### [믿음과 받으심]

“예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다는 간단한 성경 기사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반신불수의 이야기를 회상해 보자.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고 명하셨다.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 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온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건게 되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는 그 병이 나았다” (정로의 계단, 50).

[Q:질문]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A:답]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에는 전적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47,48).

## [실패의 원인]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실패하나니 즉, 저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직접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믿지 아니한다. 조건대로 응하는 모든 자들이 저희 죄 전부가 관대히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희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허락은 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버리라. 그 허락은 모든 회개하는 범죄자를 위한 것이다” (정로의 계단, 53).

## ♪♪ 찬미가 378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

1.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맘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 금이나 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주 앞에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 독생자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 ♣ 산을 옮기는 믿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에 버티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산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고독과 낙심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슬픔 또는 경제적인 궁핍일 수도 있다.

우리의 산들은 대부분 높고 험준하여 산들을 가로지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산들을 옮기는 것이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산들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다음은 신앙으로 열등감을 극복한 라이즐리의 고백이다.

"나 자신의 산은 자신감의 결핍이요, 고통스러운 수치심이며,  
모든 것에 대한 열등감이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거의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새로운 것이나 색다른 것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했다.

나는 마치 조개 속에 갇힌 듯이 살았다.

그런데 성경연구와 기도를 통하여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자갈만큼, 다음에는 돌만큼  
마침내는 바위만큼씩 자기 멸시의 산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셨으며

나는 그 분을 믿게 되었다." (버사 라이즐리)

##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가 누구뇨

본 절은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밝힌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이  
다. 이것이야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금석이며 그리스도 교회  
의 핵심 진리이다(2:22,23; 3:23; 4:1~3).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승리  
하는 믿음의 핵심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라 정의한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초극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시험 받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승리하심으로 시험 받는 인류를 어떻게 도와줄지 아시는 구세주이시며, 우리는 그가 붙드시고 이기신 능력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기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기는-세상을 이기는-믿음인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주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하는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깨달음으로 분기되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삶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고 하신 주님의 선언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취시키게 한다.

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 (1) 그가 오신 방법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더럽혀져 있다. 내적으로 우리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 굴복함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물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죄된 행동들에 의하여 외적으로 더럽혀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의 피에 의하여 이로부터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옛 의식법 속에 나타나 있다. 사람과 사물은 물과 피로 정결케 되어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한 군인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으며, 곧 그 상처로부터 물과 피가 흘렀다. 이 광경을

사랑 받았던 제자 요한이 보았다. 이제 이 물과 피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었다. 그 물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은 씻김을 받고 정결케 되었다. 그 피에 의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물과 피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 요한은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면서 이 말을 다시 강조하여 물만이 아닌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강조한다. “물”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물의 침례요,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둘은 그의 희생적 봉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를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해 주는 사건들이다. 한편 요한이 예수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한 것은 당시의 영지주의자 ‘케린투스’(Cerinthus)를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당시에 케린투스는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인간 예수를 떠나갔다고 가르쳤다. 즉 그리스도는 물(침례)을 통하여 온 것이지 피(죽음)를 통하여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침례를 신성이 인성으로 들어온 시점이라 보고, 십자가 상의 죽음 전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 되었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물 그리고 피, 둘 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2) 그에 대한 증거자

요한 서신에는 주 예수의 진실성을 옹호하는 여러 증거자들과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도는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증거 하는 성령께서

그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케 하심으로 그 자신이 또한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세상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과 구주에 대해 증거 하는 것이 성령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어 왔다. 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단절되자, 성령은 영감 받은 인간 기별자들의 조정자가 되었으며 거룩한 기별들이 그 목적의 성취를 확실케 할 방법으로 전달되고 기록되도록 하였다.

벧후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모든 예언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자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이다. 예언을 주고 지도함으로, 성령은 구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증거를 주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칭호를 갖는다(요 14:17; 벧전 1:11).

성령의 증언은 완전한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모든 증거가 참일 뿐 아니라 그의 계시 전체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때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 ♣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성경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할 때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 '보혜사'라는 단어다.

희랍어 '파라클레토스'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보혜사(保惠師)인데

이는 그 뜻이 매우 풍부하다. 곧 '안위한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훈계한다', '권고한다', '격려한다', '도와 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뜻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필리핀 남부의 쫄로아노 모로 족은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표현한다.

성령이야말로 신자와 항상 같이하시는 동반자시다.

중앙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말에서 죄와 세상 염려의 와중에서

허덕이는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따스함을 발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이보리코스트에 사는 빠울리 족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생각을 짝 동여매시는 이"라고 한다.

근심에 쌓인 마음의 생각은 무감각하고

괴로운 혼란으로 사방에 흐트러진다.

보혜사께서 이 흐트러진 생각을 짝 동여매어 자기 통제 밑에 두신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걱정을 피할 수 있거나

혹은 어떤 정신요법적 마술로 우리 생각을 잊어버리라고 함으로써

걱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생각을 통제하는 것, 즉 "짝 동여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에 내리는 화평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8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증인들은 실현해야 할 동일한 목적-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여 사람들이 그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있다. 요한



이 복음서를 쓴 것도 이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였다(요 20:31).

-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 하신 것 이니라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9~12절까지 본문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두 가지의 증거를 덧붙여 증거 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 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의 아들에게 있는 생명과 같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의 아들 됨에 관하여 증거 하신 증언은 동료 인간들이 말하는 덜 신뢰할 만한 증언도 종종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확신시키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됨을 역설하고 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체험을 말할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이론 관계에 대한 내적 느낌만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주와의 교제에 확신을 느끼는 시간들도 있는 반면에, 의심하는 날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환난의 밤중에 특별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사 43:2). 그러므로 우리는 캄캄한 흑암 중에서일지라도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감정으로 견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감정보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믿음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 마음속의 증거 역시 강해진다. 한편 사도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것이며(2:22,23), 따라서 하나님이 증거 한 것을 참되지 않다고 단언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모든 불신의 궁극적인 본질을 분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인 것이다.

다음으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영생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사실은,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 한다는 것이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갈 2:20; 엡 3:17; 계 3:20). 이렇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동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되며, 따라서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보증한다. 그러나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은 참된 생명의 유일한 근원을 거절하는 것인데, 이는 아버지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이 가능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이다(요 1:4; 3:16; 17:2).

###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정배 간 그 선지자는 그 섬의 환경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깨달았으며 천연계의 모든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지극히 열렬하게 사모하는 바램과 지극히 애절한 기도가 암석 투성이의 밤모 섬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요한은 바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에게 의지가 되시는 반석이며 그가 두려움 없이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했다.” (성화된 생애74)

##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고백이 있는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납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이다...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심판을 받으셔야 한다. 밤낮 그대 자신의 가정에서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라. 그대의 매일의 활동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라. 믿음을 그대의 기도에 혼합시켜라. 그대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대가 실제적인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을 받게 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4). 믿음의 좁은 판도 안에서 걸어가라. 모든 일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은 믿음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그대는 흔히 감정이 그대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대는... 실망한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지 말라.** 그것은 뚜렷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우리가 행사해야 할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나 발휘해야 한다. 믿어라. 믿어라. 그대의 믿음으로 축복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그대의 감정은 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믿음이 그대의 마음에 축복을 가져다줌으로 그대가 그 축복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다...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게 해야 한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지루하고 믿음 없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다. 자신의 무가치함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높여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과 빛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167).

### ♣ 살아 계신 하나님

마틴 루터가 크게 낙심하고 있자,  
어느 날 그의 아내는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누가 죽었소?"라고 그가 묻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라고 아내가 답변하였다.  
"괜한 소리 그만 두시오, 하나님은 영원불멸하시는 분이시오.  
지금도 살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오"라고  
루터가 소리쳤다.  
"그러나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요?"  
라고 그의 아내가 되물었다.  
그때야 루터는 아내의 뜻을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의심이 구름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 ♣ 믿음은 생명을 지켜주는 빛

어느 날 영국의 계관시인인 테니슨이 친구와 같이 후원을 거닐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친구는 테니슨에게 물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테니슨은 말없이 한참 걷다가  
가장 아름다운 꽃 앞에 와서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여보게, 나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저 태양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의 빛과 열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네."

## VI. 결론, 5:13~21

### 1. 목적의 재천명, 5:13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 그 기록 목적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본 절에서 요한은 본서의 기록 목적을 밝힘에 있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 설명한다. 즉 전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록한 것이고, 후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의도에서 기록하였음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 ♣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톨스토이의 작품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미하엘이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지상에서 구두직공이 되어 일을 했다.

미하엘은 일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인간에게 베풀어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천사인 줄 모르는 이 구두직공에게

"한 일년동안 튼튼하게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미하엘이 보니 그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있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1년을 운운하는 것을 본 미하엘은  
"인간에게 베풀어 있지 않은 것"이 죽음의 날짜임을 알고 얽게 웃는다.  
언제 호흡이 멎을지 모르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이다.

## 2. 무죄에 대한 권고, 5:14~17

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전지하고 자비하신 주님은 무엇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시며, 그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다(살전 4:3). 우리가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렬하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간구를 드리면, 구주께서는 들어주시기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단 우리의 간구가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조화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보증은 매일의 생애에서 큰 문제들 뿐 아니라 작은 것들에서도 유효하다. 우리의 머리카락조차 헤아리시는 주님은 당신이 대신 죽은 자들의 삶의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마 10:29~31).

히 4:15,16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 한 사람의 기도

존 낙스는 종교 개혁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다.

메리 여왕은 열심 있는 카톨릭 신자였다.

그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

그 날 밤에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는 그 기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계속했다.

그의 방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방이었다.

그 방에서 문을 열면 메리 여왕이 사는 아주 화려한 궁전이 보인다.

그는 거기서 꿇어앉아 열심히 기도했다.

마지막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죽었다. 그때에 메리 여왕은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백만의 대군보다도 무섭다’**

란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이다. 그때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목숨을 살린 것이다.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  
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에는 전 절의 “그의 뜻대로” 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면 주의 심판과 그분의 뜻이 자비  
롭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렘 29:11).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방침

이 올바른 것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분의 행위가 완전함을 알기에 묵묵히 신뢰할 것이다. 우리 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지식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는 가능한 최상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의 간구를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게 할 것이다.

### ♣ 늦게 응답 받는 기도

고아원의 창시자 조지 밀러는 수많은 고아들의 수용품(需用品)을 주 안에서 형제 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 받았다.

어떤 스코틀랜드인은 여러 해 동안이나 이 고아원을 위해 많은 돈을 보내어 도왔다.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의 간절한 소원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러 해 동안이나 밀러씨와 함께 합심 기도하였다.

그러던 중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회심(回心)을 보지 못한 채 그만 세상을 떠났다.

그 후부터 오랫동안 소식이 끊기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미 장성해진 죽은 이의 그 아들이 밀러씨의 고아원을 찾아왔다.

밀러씨에게 말하기를 "제 아버지의 문서를 찾아보니, 아버지는 많은 금액으로 이 고아원을 도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전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만일 그 고아원을 찾아가 아버지처럼 돕는다면 좋아하시겠지? 나도 그렇다면 돕기로 하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돕고자 하는데 돈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 소녀를 위해 봉사까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호의를 밀려 고아원에서는 감사히 받기로 되어

그는 고아원에서 곧 일하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그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던 주를 믿게 되었다.

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때, 고아원 직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조금도 이상히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38년 동안이나 밀려씨가 쉬지 않고 당신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계속했으니까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밀려씨의 기도는 38년만에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다.

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  
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  
노라

14,15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증을 주었다면, 본 절에서는 죄의 두 종류를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효력이 있는 것과 효력을 보장 받지 못하는 기도의 유형을 언급한다. 즉, 죄의 두 종류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죄인을 위한 희망이 있는 죄들이며 그것에 대한 기도는 구원을 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진정으로 소원하지만 연약한 의지와 쪼뻛 습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뻔뻔하고 고의적인 죄들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차이는 쪼뻛 행위 자체가 관건이 아니라 죄를 범한 자의 태도와 동기에 구분을 둘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죄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실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또한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지중에 중대한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참된 회개가 뒤따른다면 역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거절은 반드시 사망을 초래하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예증된다.

사울은 죄를 짓고 난 다음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중대한 죄를 지었으나 진심으로 회개했다. 사울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죽었으나 다윗은 용서 받았으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보장받았다. 자신을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일치한 간구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삼자에 관한 기도는 당사자 역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를 강제하지 않으시는데, 만일 그가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죄인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희망의 여지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그 영혼이 성령의 애소하시고 탄원하시는 음성엔 언제 굴복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 [사울과 다윗]

### 1. 사울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보내어진 견책에서 돌아서서 완고하게 자기의 주장을 고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하였다. 사울은 고의로 하나님을 떠났다. 사울은 그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지도를 받을 수 없었다. ...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4:12).…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음으로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보다 사단의 기만적 능력에 대한 더 큰 증거는 없다. … 사울은 우상숭배와 사술을 진압하는 데 큰 열심을 나타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으로 행했고, 사술을 행하는 자처럼 사단의 감동을 받아서 책망을 받을 때에 더욱 완고하게 반역하였다. … 하나님의 말씀이나 당신의 영의 책망과 경고를 경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사울처럼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죄악의 진정한 성격에 대하여 눈멀게 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저희가 어떤 좋은 목적을 계획했고 여호와의 요구에서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혼자 속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은혜의 성령을 멸시함으로 마침내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고 저희가 선택한 기만에 빠져 버리게 된다.” (부조와 선지자, 634~636).

## 2. 다윗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 하시리 이다” (시 51:17).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일으키셨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

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이다” (시 32:5~7).

많은 사람들은 저희 보기에는 훨씬 덜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  
하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은 아끼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  
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  
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역사에서 이 대목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투쟁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 있는 예증의  
하나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이것은 범죄 하여 그들의 죄악의 짐에 눌러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근원임이 입증되었다. 범죄하고 절망  
에 빠져 자포 자기 하려던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  
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가납하  
심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  
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  
락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725~726).

### ♣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도 중요한 설교하는 법은  
안 가르쳐 주셨으나

기도하는 법은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도 부족할까봐  
기도의 Sample이라고 할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으며,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켜 '말씀의 집'이라 한 곳보다  
'기도하는 집'이라 한 데가 더 많다.  
사도바울은 쉬지 말고 찬송하라거나 쉬지 말고  
성경보라는 말은 안 했으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기독교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말한 이도 있다.

### ♣ 술 취한 친구

루터가 하루는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다.  
"술 취한 친구를 말에 태워 집에 보내기는 아주 어렵다.  
이쪽에서 올리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에서 말에 올리면  
이쪽으로 떨어진다.  
방법은 친구 하나가 함께 안장에 앉아 가는 것이다."

## 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① 사망에 이르는 죄 : 어떤 부분적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단 사상(Calvin), 하나님의 은혜를 완고하게 거부하고 죄를 계속 고집하는 것(Plummer), 배교 또는 배도의 죄(Bruce),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여 회개를 거부하는 죄(Clarke)라고 정의한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고(마 12:31), 히브리서 저자는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였다(히 6:4~6). 이렇게 볼 때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훼방하는

죄요, 회개치 아니하는 죄로 요약할 수 있다.

②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든 죄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 자체이시므로 하나님의 표준적 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불의요 죄이다. 일반적으로 불의함이란 무고한 사람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죄를 말하나(창 31:36~42; 삼하 12:1~12),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에 대적하는 행위 역시 불의에 속한다(롬 2:18).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고전 6:9),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한다(살후 2:12). 따라서 신자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불의는 곧 사망에 이르는 죄(롬 6:23)이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라는 마지막 격려, 5:18~21

- 18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 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위의 18~20절의 본문 내용을 통하여 요한은 세 번에 걸쳐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마지막 기별을 확신 있게 증거 한다. 주된 핵심 요점은 그리스도인과 거짓 교사들과의 차이점이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지각을 통하여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 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며,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 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저를 지키시매(KJV, keepeth himself, 자신을 지키시매) : 곧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지키시매’ 라는 말로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신자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이다. 한편 신자 자신도 그의 영혼의 길목을 지키고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욕을 고소하는 사단의 고소에서 알 수 있듯이(요 1:10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하나님께서 난 자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새 언약의 율법이 죄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다.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헬: 합토마이, haptomai) : ‘자신을 ~에 붙들어 매다’, ‘~을 붙잡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는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을 지키거나,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 곧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귀한 보증의 약속이다(요 6:39; 10:28; 17:1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 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는데, 바울은 이를 가리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4)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 가 ‘죄를 범치 않는다’ 는 요한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 는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다(롬 6:2,11).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인 것이다. 신자들이 크게 기만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자신을,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도록 부름 받은 자로 착각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

닌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외치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다고 선언한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인 죄의 전 남편에게서 돌아서서 완전히 절교하며(롬 7:1~4), 새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고후 5:17)이 되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 하는(롬 6:14) 지체가 되어 “의의 병기로 하나님 께 드리” (롬 6:13)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하자.

### ♣ 우리의 방패 하나님

여섯 살 난 아들이 내가 양파의 껍질 벗기는 것을 보며 서 있었다.

"엄마, 그거 종이에요?"

"아니다. 이것은 양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자, 여기에 우리가 쓰는 부분이 있지."

나는 먹음직한 양파 속을 보여 주었다.

"모든 물건에는 다 그것을 보호하는 껍질이 있지.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껍질이 있거든."

나는 인간의 피부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을 때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무엇인가 깨달은 듯이 말했다.

"나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뭐."

### ♣ 눈동자같이

눈은 인간의 신체 구조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것 중의 하나다.

그리고 눈동자는 그 눈 가운데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예민하고 쉽게 상처를 입는 부분이다.

다른 어떤 것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라는 말씀처럼

여호와와의 민감하고 따뜻한 관심을 분명하게 전해 줄 수 없다.



성경에는 동일한 감정을 표현해 주는 많은 비유들이 있다.  
 하지만 이 비유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된 비유는 없다.(워들로)

19절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의 자녀들을 대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들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아야 하며 하늘 가족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한다.(창 4:7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20절의 “아는 것” 은-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지상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의 중보사역까지-그리스도의 강림과 인류를 위한 그분의 사역의 근본 목적에 대한 참된 이해로써,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로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며, 나아가 영생의 소망을 붙잡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은 우리로 지각(헬: 디아노이아, dianoa) 곧 무한한 이해의 능력을 확장시켜서 교묘한 사단의 꾀계인 오류(예: 영지주의의 허위)를 분별하게 함으로 참된 진리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게 해 준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 본 구원의 경험을 모든 믿는 자들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다. 필자 역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구주’ 를 더욱, 더욱, 더더욱 알게 되기를 절절히 소원한다.

### ♣ 우주 과학자의 의문

메릴랜드 우주항공사에서는 컴퓨터로 십만 년 전까지를 소급해서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래야 인공위성의 충돌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노라 하는 우주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조사를 하여도  
해결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십만 년 동안 24시간의 오차가 났다는 것이다.

‘하루가 어디로 갔을까’

이것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10만 분의 1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충돌 사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텝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타이피스트가

"소장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이 멈추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연구실에 돌아온 소장의 귀에는 아까 그 타이피스트의 말이 맘에

자꾸만 메아리친다. 그리하여 몰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았다.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소장은 조용히 컴퓨터로 그 당시의 시간으로 되돌아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거기서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소장은 흥분했다.

어쩌면 나머지 40분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그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조사하였다.

드디어 그는 열왕기상 20장에 왔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보장받는다.

히스기야 왕은 그 징조가 무엇인지 보여 달라고 한다.

이때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가 10도란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다.

해시계는 24시간을 360도로 원을 중심하여 만든 것이다.

그 중에 10도란 정확히 40분이었다.

소장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당신의 정확무오성에 한 과학자가 경건히 무릎을 꿇습니다."

♪ 찬미가 197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

1.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2.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3. 성령의 감회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이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호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  
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켜(헬: 필랏소, phulasso) : ‘지키다’ , ‘망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지만 신자들 편에서도 “더욱 힘써” (벧후 1:10)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오관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서 죄의 발판을 내어주지 않도록 깨어 경계해야 한다. 구속 사업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합동작품이다 (Atonement).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병되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방종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굴복되고, 그분께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At+one+ment, 하나가 되다),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의 우상들을 내어 쫓아야 한다.

그것이 TV이거나, 컴퓨터이거나, 자동차이거나, 집이거나, 땅이거나, 돈이거나, 쇼핑중독이거나, 식욕이거나, 자녀들이거나, 명예이거나, 자존심이거나, 학벌이거나, 재산이거나,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속의 우상은 우리 생애에서 반드시 격퇴되어야 한다.

필자의 마음속의 소원은 이것이다. ‘저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와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 진정 필자의 소원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시여! 우리 모두 억누를 수 없는 하염없는 소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 속 깊이 고백하지 않으려는가?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 찬미가 507장 “주님 지신 십자가에” ♪

1. 주님 지신 십자가에 나는 꿇어 엎디어  
어둔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 어둔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 가겠네
2.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버리고  
오직 한분 주님 만을 늘 섬기며 따르리  
♪ 어둔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 가겠네
3. 세상 향락 부귀 영화 나의 눈을 끌어도  
조님 향한 나의 믿음 영원 불변 하겠네  
♪ 어둔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 가겠네
4. 주는 세상 만물들을 홀로 주관하시니  
모든 것 다 바친 후에 주만 향해 가겠네  
♪ 어둔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 가겠네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지키는 법〉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은혜 가운데서 건전한 성장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 타고난 마음은 젖된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이다. 그 마음을 주께 복종시킬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다. 이 일은 사람이 허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리스**

도인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매일 죄를 포기하는 일과 영혼을 얻 매고 있는 습관의 사슬을 깨뜨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양심이 정죄하는 어떤 것들은 포기하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한 말을 내뱉는 때가 많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악한 정욕을 휘저어 놓는 말을 하는 때가 매우 많다.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임재가 필요하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들은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도움을 호소하며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는 일에 지치지 말고, 매 순간 묵상함으로 기도 중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열렬하면서도 겸손하게 도움을 호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주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생각과 욕망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신을 믿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청년지도자, 1903. 3. 5).